

South Korea 2 - 1 Czechia — 데이터 기반 전술 칼럼 (2026-06-12)

한 경기, 두 언어: 빌드업의 집요함이 다이렉트의 속도를 이겼다

한 팀은 공을 오래 소유하며 조밀하게 연결했고, 다른 팀은 거침없이 전방을 겨눴다. 2026년 6월 12일, 월드컵 무대에서 만난 대한민국과 체코의 90분은 2-1이라는 스코어 뒤에, 두 가지 공격 언어의 충돌을 숨기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점유율 62%와 541회의 패스, 그리고 경기 내내 이어진 짧은 연결로 경기를 지배했다. 반면 체코는 평균 패스 거리가 더 길었고, 빌드업보다 한 번의 롱패스로 공간을 노리는 다이렉트한 접근을 고집했다. 이 날의 승부는 단순히 골 수를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빌드업의 집요함과 롱볼의 직진성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위협을 쌓아 올릴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 경기의 전술적 갈림길은 첫 번째 핵심 변수인 '평균 패스 거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체코가 대한민국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긴 패스를 시도하며 다이렉트한 전개를 택한 반면, 대한민국은 짧은 패스와 촘촘한 콤비네이션을 통해 상대 진영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체코는 패스 한 번에 더 먼 거리를 전진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짧은 연결로 상대 압박을 풀고, 64회의 최종 3분의 1 진입과 15개의 슈팅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경기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뛰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더 많은 위협을 누적했는가'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빌드업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꾸준함이 결국 2-1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날 월드컵 무대에서, 빌드업의 언어가 다이렉트의 속도보다 더 많은 해답을 안겨줬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평균 패스 거리, 패스 의존도, 패스 회전 속도가 만든 전술의 흐름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과 체코를 가른 전술적 변수는 단순한 패스 숫자나 점유율의 싸움이 아니었다. 세 가지 핵심 변수—평균 패스 거리, 패스 의존도, 그리고 패스 회전 속도—가 서로 맞물리며 두 팀의 공격이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렸다. 체코는 평균 패스 거리가 더 길었고, 롱패스와 전방향 다이렉트 전개에 기대는 모습이 뚜렷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패스 하나하나의 거리는 짧았지만, 패스 의존도가 높고, 볼을 빠르게 순환시키는 데 집중했다.

체코의 다이렉트한 선택은 빌드업을 생략하고 한 번에 전진하는 공격을 자주 연출했다. 실제로 체코는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곧장 전방으로 길게 찢어 넣는 패턴이 많았고, 공격의 상당수가 미드필드 구간을 건너뛰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을 빠르게 점유하려는 의도였으나,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은 많지 않았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짧은 패스를 연쇄적으로 이어가며 상대 압박을 분산시켰다. 패스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공격의 대부분이 두세 명 이상이 관여하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패스 회전 속도, 즉 볼을 돌리는 템포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은 볼을 잡으면 곧장 다음 패스를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체코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공격을 풀었다. 이 빠른 볼 순환은 체코의 압박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체코가 한 번의 롱볼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번의 패스와 짧은 움직임으로 박스 주변에서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 세 변수의 결합은 대한민국의 공격이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경로로 박스를 공략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공격 시퀀스의 단계별 해부—어떻게 위협이 쌓였는가

대한민국의 공격 시퀀스를 단계별로 쪼개보면, 그 구조적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먼저, 시작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 미드필드까지 볼을 끌어올린 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며 전진했다. 541회의 패스 시도, 468회의 성공 패스라는 수치는 단순히 볼을 오래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공격 한 번 한 번이 여러 명의 움직임과 짧은 연결로 조립됐음을 뜻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패스의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대한민국은 64회의 최종 3분의 1 진입을 기록했는데, 이 중 많은 장면이 미드필드에서부터 짧은 패스 교환을 거쳐 상대 박스 근처까지 이어졌다. 15개의 슈팅 중 10개가 박스 안에서 나왔다는 점도, 단순히 롱볼이나 크로스 한 방에 기대기보다는, 박스 주변에서 여러 번의 연결 끝에 마무리까지 도달했다는 증거다.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격이 박스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됐는지가 드러난다. 4번의 빅 찬스 중 2번을 득점으로 연결했고, 1.8의 기대득점(xG)은 실제 2골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공격 시퀀스가 단순히 볼을 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반면 체코는 5개의 박스 안 슈팅 중 단 한 번만 골로 연결했다. 공격의 출발은 다이렉트했지만, 종결에서는 대한민국의 촘촘한 패스와 빠른 템포가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냈다.

세트피스, 박스 진입, 크로스—결정적 차이의 현장

지표	South Korea	Czechia
포메이션	3-4-2-1	3-4-2-1
팀 평점	7.2	6.6
점유율(%)	62	38
기대득점(xG)	1.8	0.8
전체 슈팅	15	7
유효 슈팅	6	4
박스 안 슈팅	10	5
빅 찬스	4	1
코너킥	4	5
파울	9	16
패스 시도	541	324
성공 패스	468	229
최종 3분의 1 진입	64	51
태클 성공률(%)	57	78
듀얼 승률(%)	61	39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박스 안 슈팅(10 대 5), 빅 찬스(4 대 1), 그리고 최종 3분의 1 진입(64 대 51)이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유를 박스 안 위협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4번의 빅 찬스 중 2골을 뽑아낸 효율은, 박스 주변에서의 패스 교환과 빠른 템포가 실제로 결과로 연결됐음을 시사한다. 체코 역시 5번의 코너킥과 1번의 빅 찬스를 만들었지만, 그 외 공격의 상당수는 대한민국 수비에 막혀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12번의 크로스 중 3번만 성공했지만, 크로스 자체보다 박스 주변에서의 짧은 패스와 콤비네이션에 더 큰 비중을 뒀다. 반면 체코는 15번의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성공률은 20%에 그쳤다. 실제 체코의 유일한 득점도 스로인 세트피스에서 헤더로 연결된 장면이었다. 즉, 체코의 공격은 세트피스와 롱볼에 편중됐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다양성은 부족했다.

결정적 장면의 디테일—대한민국 두 번째 골의 전술적 의미

후반 80분,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은 이 경기의 전술적 흐름을 압축하는 대표적 장면이었다. 이 시퀀스는 후방 빌드업에서 시작해 미드필드에서의 짧은 패스 교환,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빠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대한민국의 패스 회전 속도가 평소보다 더욱 가속화됐다. 몇 차례의 1-2 패스와 측면에서의 빠른 볼 전환이 이어지며, 체코 수비가 라인 간격을 좁히기도 전에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나왔다.

결정적 패스가 박스 중앙으로 연결됐고,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해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 골은 대한민국이 평소 보여준 빌드업-콤비네이션-빠른 종결의 3단계가 교과서적으로 구현된 결과였다. 반면 체코는 이 장면에서 롱볼 한 번으로 전방을 노리다가 역습을 허용했고, 수비 조직이 갖춰지기 전에 실점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은 이 경기의 전술적 명암—짧고 빠른 패스의 집요함과, 다이렉트 롱볼의 단순함—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한 것이었다.

왜 대한민국의 방식이 통했다—승자의 전술적 판정

대한민국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체코를 2-1로 꺾은 이 경기는,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전술적 판결을 남겼다. 이 승부의 핵심은 바로 "콤비네이션과 패스 템포"에서 비롯된 차이였다. 대한민국은 경기 내내 짧은 패스와 빠른 회전을 통해 미드필드와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었고, 체코는 평균 패스 거리가 긴 다이렉트 플레이로 응수했다. 하지만 두 방식의 효율성은 박스 진입과 슈팅,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완성도로 갈렸다.

아래는 두 팀의 주요 팀 통계 비교표다.

지표	South Korea	Czechia
포메이션	3-4-2-1	3-4-2-1
팀 평점	7.2	6.6
점유율(%)	62	38
기대득점(xG)	1.8	0.8
전체 슈팅	15	7
유효 슈팅	6	4
박스 안 슈팅	10	5
빅 찬스	4	1

지표	South Korea	Czechia
코너킥	4	5
파울	9	16
패스 시도	541	324
성공 패스	468	229
최종 3분의 1 진입	64	51
태클 성공률(%)	57	78
듀얼 승률(%)	61	39

이 표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은 점유율(62%), 패스 시도(541회), 성공 패스(468회) 모두에서 체코를 압도했다. 특히 최종 3분의 1 진입(64회)과 박스 안 슈팅(10회)에서도 우위였다. 이는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패스 의존도와 회전 속도에서 대한민국이 체코보다 뚜렷한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드필드에서의 볼 순환이 곧바로 박스 근처의 위협으로 연결됐다.

반면 체코는 평균 패스 거리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이는 곧 롱볼과 다이렉트 전개의 빈도수가 높았음을 뜻한다. 실제로 패스 시도(324회)와 성공 패스(229회) 모두 대한민국에 크게 뒤졌고, 빅 찬스(1회)와 기대득점(0.8) 역시 제한적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슈팅의 질과 양에서 드러났다—체코는 박스 안 슈팅이 5회에 그쳤고, 그중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위협을 만들어냈다. 오픈플레이에서의 전개 다양성이나 박스 진입의 효율성은 대한민국에 미치지 못했다.

결론—콤비네이션의 집요함이 다이렉트의 단순함을 눌렀다

이 경기는 한 팀의 콤비네이션 중심 빌드업이, 상대의 다이렉트 롱볼 축구를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였다. 대한민국은 패스 의존도와 회전 속도, 그리고 최종 3분의 1에서의 짧은 연결이 체코의 롱볼과 비교해 훨씬 높은 빈도로 박스 안 진입과 슈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기대득점 1.8, 박스 안 슈팅 10회, 빅 찬스 4회라는 수치는 단순히 점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의 완성도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체코는 평균 패스 거리에서 우세했지만, 롱볼 한 방에 의존하는 공격은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했고, 오픈플레이에서의 위협은 제한적이었다. 세트피스에서 한 번의 헤더로 득점하긴 했으나, 그 외에는 대한민국의 촘촘한 미드필드와 빠른 패스 회전에 수세에 몰렸다. 결국 승부는 "누가 더 자기 방식대로 경기를 지배했는가"의 문제였고, 그 답은 대한민국의 콤비네이션과 템포였다.

이 판정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다음 라운드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색깔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다. 빠른 패스 회전과 높은 패스 의존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짧은 연결이 유지된다면, 더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코는 롱볼과 세트피스에만 의존할 경우, 오픈플레이에서의 다양성 부족이 한계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이번 경기가 증명했다. 90분의 진실은, 콤비네이션의 집요함이 다이렉트의 단순함을 눌렀다는 데 있었다.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로부터 생성된 콘텐츠입니다.